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의료보장성을 달성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보장성 수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보장성 수준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성 수준이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보장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단계로 내려가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보급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이 소요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 주제는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입니다.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의 기초는 '의료보장성 확대'였습니다. 대표지표인 건강보험급여율 자체가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아직도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월19일(화) '심평포럼'의 주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의 발제문을 재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팀장, 김정희 건강보험연구원 급여·보장성팀장,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이준협 고려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의 토론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의료보장성 지표의 개념과 산출방법의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HIRA 연구'는 주요 외국의 보건의료 재정안정정책과 그 효과를 다루었습니다. 국민의료비가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공급자 지불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대책으로 이들 국가가 전개하고 있는 정책을 고찰, 소개했습니다. 향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 브리핑'에서는 2월14일(목)에 개최된 "호스피스 수가체계연구" 공청회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스피스 법령과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해외 동향'에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에 관한 공약을 비롯하여 OECD 보건 의료구매력평가지수 제2차 회의의 동향, 연구목적의 개인정보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규제 현황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질병별 진료비 지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